

주의 세례 기념 특일

기도서 P. 239 C해

- 제1독서(이 사 42, 1-4. 6-7)
- 제2독서(사 도 10, 34-38)
- 복 음(루 까 3, 15-16. 21-22)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권 한 상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감 론



별들의 고향

전 종 복 신부

밤이 되면 별들이 나타납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욱 더 빛을 발합니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은 별입니다. 그러기에 별없는 밤은 더욱 무섭고 쓸쓸합니다. 어두움속에 별마저 없다면 나그네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울 것입니다. 별은 의로운 나그네의 길잡이요, 친구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이었습니다. 새벽별은 새벽이 움을 알려주는 것이 임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밤이 지났음을 알려 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느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미 세례를 받았 습니다. 세례는 주님께 대한 신앙고백이요, 회개를 의미 합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광명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광명의 길은 밝고 정의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이제는 밤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태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밝고 명랑한 여행길을 떠나면 됩니다.

사랑의 길은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 만나는 이웃에게 관심을 쏟고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무관심과 냉대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좀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셈이 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험난하고 고��스러운 길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그분은 이 길을 다듬고 개척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경을 딛고 그분의 길을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간다면 그분은 그분이 얻으신 영광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와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 삶에는 많은 것이 필요 합니다. 재화, 명예,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들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열 심히 추구하고 습득합시다. 그러나 그 모두는 태양을 준 비하는 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에 정착하고 만 족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태양입니다. 빛을 발산하지 못하는 별은 별이 아닙니다. 빛의 원천인 태양 이 없는 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별들의 고향은 태양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고향은 그리스도인 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태양의 80년을 힘차게 살아갑시다. (덕진 전주교회 보좌신부)



제대로 끊고 똑바로 믿자!

천주교 신자는 세례를 받을(領洗) 때에 <마귀와 죄를 끊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신·거룩하고 공범된 교회·성인의 통공·죄의 사함·육신의 부활·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신앙고백을 먼저 하게된다.

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罪를 끊어 버려야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惡의 유혹을 끊어 버려야 하며, 죄의 근원이요 지배자인 마귀(魔鬼)를 끊어 버려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부정과 타협을 하며 살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상당한 해탈을 누릴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명예도 얻을 수 있어서 잘하면, 족보에는 못오르지만, 집안의 중시조 노릇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끊자니 참으로 마음이 심란할 뿐이다. 그러나 끊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가 참되고 착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이다. 그 하느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삶은 자신의 안일과 무시함을 바라는 삶이 아니었다. 가진바를 나누어 주고, 죽음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검은 것을 검다고 하신 분이였다. 그래서 그에게는 골고타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의 삶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었다.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교회와 성신의 돌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생략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만을 원하는 지도 모른다. 여기에 또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다.

대망의 80년째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손짓이 더 심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끊을 것을 제대로 끊어 버리고, 믿을 대상을 바로 믿어야 한다.

숲 정이 산책



하느님의 새해 선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마태오 6, 10)

□ 갈라짐의 아픔

분열은 아픔이다. 분열은 아픔을 넘어서 죄악을 낳기도 한다.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역사에는 가끔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죄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갈라짐과 일치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며, 먼저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다.

□ 갈라짐과 일치의 역사

○ 갈라지는 아픔의 역사

1054년...가톨릭(西方교회)과 東方교회가 서로 파문(破間)하고 갈라짐

1517년...마르틴 루터, 95개조 선언 발표

1531년...영국왕 헨리 8세, 영국교회(聖公會)의 독립 선언

1536년...장 칼빈, 장로교 시작

1589년...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에서 독립

16세기...조합(組合)교회, 성공회에서 분리 발족

17세기...침례교 발족

18세기...감리교 발족

19세기...구세군 발족

○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들

1215년...라테란 공의회에 동방교회 초청했으나 불참

1438년...플로렌스 공의회(38~43년) 기간 동안에 일부 동방교회, 로마 가톨릭과 재일치

19세기 후반...개신교 각파의 자체 연합 운동 시작

각종 선교단체 연합회 발족-Y. M. C. A (1878),

Y. W. C. A (1898), 세계 기독교학생 연맹 (1895)

1948년...세계 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WCC) 창립, 개신교의 150교회가 가담

1949년...일정한 조건하에 가톨릭 신자들의 교회 일치 운동 참여 허용

1960년...일치운동 사무국이 로마에 설치됨(가톨릭)

1961년...W. C. C 제3차 총회에 가톨릭의 공식 옵서버 참석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적극적인 움직임들

1964년...가톨릭 교회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현장」·「일치운동에 관한 교령」·「동방교회에 관한 교령」을 발표하고 일치운동을 적극 추진

1965년...일치 사무국 위원장, W. C. C 본부를 공식 방문

가톨릭과 W. C. C간의 공동 연구위원회 발족

로마와 이스탄불에서 東西교회가 서로 선언한 파문을 철회하는 예식을 동시에 거행

1969년...교황이 W. C. C 본부 방문

1971년...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신자에게 영성체 허용

1972년...일치운동 사무국, 타교파인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한 훈령 발표

1979년...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동방 정교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 교회일치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

□ 일치하는 하느님의 뜻이며 시대의 요청

오늘의 세계는 권력의 편중이 과거 어느때보다 심한 것 같다. 오늘날 불의는 어느때보다 맹위를 떨치고 폭력과 심지어 고문이 어느때보다 만연되어 있다. 인류의 생존과 그의 생활권의 존속이 갈수록 의심스러워진다.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전 세계에 산재한 그리스도 신자들은 상당수가 자신들의 사명이 '암흑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에 있음을 깨달아 가고 있다. 그중 일부는 점차 기력이 빠지는 느낌을 받고 심지어 절망하기까지 한다. 자기들의 공동 증언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임을 깨달을수록 분열로 말미암아 그 길이 가로막혀 있어 교회가 이 공동 증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정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교회는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이 되어 공동 증언을 하는 것이 고유한 사명이다. 그런데 교회의 분열상은 그 공동 증언을 보호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한다. 교회의 성원들이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투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만물이 새로와지리라고 예고할 수 있겠으며, 만민이 서로 다르면서도 형제 자매를 한 가족으로 일치하리라는 예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진심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끼리 일치하여야 한다. 이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기원하신 것도 이 일치이며, 당신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로 일치하고 이 일치에 우리 사이에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기 바라셨다. 교회는 하느님 통치의 궁극적 도래에 희망을 걸고서 살아가며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만큼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로 재회(再會)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주교회의 일치위원회가 만든 일치주간 유인물의 머릿말에서)

□ 하나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요한 17, 21)

주여, 우리를 갈라놓는 차이 속에서, 우리를 분열시키는 경쟁속에서, 우리 사이에 장벽을 쌓는 악감정속에서 우리를 흠어지게 만드는 차별속에서, 주는 일치와 사랑에로 우리를 부르시며, 한 인류 가족으로 우리를 재창조 하시나이다. 우리 일치의 전망을 주 안에서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민성에 합쳐진 새 인간성의 모습을 발견케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하소서.

희 소 식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오던 절면조가 가축, 부업, 화초식품용으로써 대량 생산되어 획기적인 신흥물 일시키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의 연락 바랍니다.

특 징

노천사육이 가능하며 질병이 없으며 닭에 비해 성장율이 빠르며 초식동물로써 사료비가 40% 절감할 수 있음.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내정부락

절면조 사육장 요 셉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케 전문·제대장식

유명장사 직접지도 꽃꽂이 회원모집

◇ 교우 여러분께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0921

범 띠또(덕배)·이 마리아

敎區設定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設問조사

1981년, 전주교구가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邦人自治敎區)로 설정된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50주년을 앞둔 금년은,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해이다.

50주년을 보다 뜻있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6만 교우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이 준비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조하자. 혹시라도 본당에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거든 낭 성실껏 응하자. 관심이 있는 형제자매는 본당신부님께 찾아가 설문지를 받아서 질문에 응하자. 통계처리상 이 설문 응답은 다음주(20일)까지는 마쳐져야 하겠다.

1784년 이땅에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되었고, 1831년 한국교회는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되어 조선교구가 창설되었다. 조선교구 창설 100주년을 맞은 1931년에는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 전주교구가 설정되었다.

이제 교구 창설 5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부끄러운 후예가 되지 않도록 마음부터 새롭게 다지고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1980년을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 하여 금년을 "내적 쇄신의 해"로 정했다.

따라서, 교구설정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오늘에 더욱 알차게 꽃피우기 위해 몇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1. 솔직하게 고백하여 우리는 역사를 잘 모르는 부끄러운 후손들이다. 한국 교회의 흐름은 제쳐 놓고라도, 바로 우리의 일인 교구설정 50주년의 역사조차 모르고 있다. 우리는 1980년에 교구사 교육을 통한 의식계발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재정비 해야한다.

2. 교구사의 편찬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부족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다. 본당의 연혁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하면, 6.25 당시의 순교자들에 대한 조사도 부족하기만 하다.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3.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1981년에는 내 가까운 이웃 한사람을 하느님께 바치는 신자 배가운데 그 몫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기념성전의 봉헌도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4. 선조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순교자들의 시성,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는 일이다. 조상들의 위업이 우리의 노력 부족으로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성지도 개발되어야 한다. (치명자묘지 발굴...) 기념관 설립 추진도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 여성 여러분에게
뜻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오)

(이시계점 옆)

전화 ② 621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영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금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문화양행

오종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②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직원 모집 공고

1. 직종 및 인원 : 서기직 남·여 약간명
2. 자격 : 남자-만 20세이상 35세미만의 남자로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써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여자-만 18세이상 21세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3.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본조합 양식) 1통
 - ② 자필이력서 1통, 명함판사진 2매
 - ③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④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통
 - ⑤ 병적 증명서(남자) 1통
 - ⑥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각 1통
4. 접수기간 : 1980. 1. 6~1. 14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5. 전형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후 개별통지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총무계에 문의바람(전화 ③9961·9962)

전주 중앙 신용 협동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춘

□ 타을, 보자기, 족석 인쇄
※ 교우여러분들의 협조바랍니다

송월타을

(남문영업무)

전주시 전동 3가 9

(전북은행 남부지점)

전화 ② 2849 · ③ 5612

업관섭(베드로)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이참수(바오로)

전주 남문영

전화 ② 8188 (자 ②036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일치 기도 주간...1월 18일(금)~25일(금), 기도합시다! (2면 참조)
 2. 여자 젠(GEN) 모임...13일(일) 오후 2시, 청심여고 강당에서
 3. 푸르실로 성공을 위한 격려 참석과 뽀랑까 부탁드립니다...선배들이여, 옛날 감격을 되살립니다. 여성 7차...개회식(14일(월) 오후 6시), 마나니따(17일(목) 오전 4시30분), 폐회식(17일(목) 오후 6시) 남성 13차...개회식(19일(토) 오후 6시), 마나니따(22일(화) 오전 4시30분), 폐회식(22일(화) 오후 6시)
 4. 제1차 공소 지도자 피정(1·2지구) 참가실적 지극히 저조...41%(26/64명)
 5. 제7지구(여산·용안·합열·화산·황등) 중고등 학생회 임원 정기총회...17일(목) 오전 11시, 합열성당서
 6. 레지오 마리에 피미시움...1월 20일 오후 2시 전통성당에서
- 축! 고창 심원공소 낙성식...21일(월) 오후 2시
- 전주교구 중고등연합회 제22대 정기총회: 80년 1월 26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강당에서, 공문참조
- 교구 인사(80년 1월 5일자)...인수 인계(14일), 부임(17일까지), ()은 전임지
- | | | | | | |
|-------|---------------|-----|--------------|-----|-------------------|
| □ 김영일 | 신부-파티마 주임, | 법석규 | 신부-면, 사무처장, | 김환철 | 신부-부주교 겸 사무처장(팔마) |
| □ 문정현 | "-금산(서약동), | 서용복 | "-남원(중앙), | 이수현 | "-서독 교포사목(월명동), |
| □ 문규현 | "-중앙(파티마), | 이재후 | "-월명동(남원), | 김병환 | "-서학동(금산), |
| □ 선태수 | "-팔마(교산), | 전대복 | "-고산(임실), | 왕수해 | "-임실(중앙), |
| □ 전종부 | "-중앙 1보좌(춘창), | 조정호 | "-덕진보좌(창인동), | 강덕행 | "-춘창(월명동), |
| □ 권이 | "-문물동보좌(덕진), | 박병준 | "-창인동보좌(합열), | 이상성 | "-김제보좌(주현동), |
| □ 권이 | "-군중임대(문물동), | 김성진 | "-군중임대(김제), | 김희남 | "-월명동보좌(새신부) |
- 군인들을 위한 묵주성금...창인동 스카웃 2천원, 중앙 평화의모후 5만원 □ 정의평화...창인동 스카웃 2천원



(중앙)

전화 ③3651
3874

| | | | | |
|----|----|---|---|---|
| 주임 | 신부 | 서 | 우 | 복 |
| 보좌 | 신부 | 왕 | 수 | 해 |
| 보좌 | 신부 | 정 | 태 | 현 |
| 사도 | 회장 | 길 | 병 | 구 |

1. 신부 인사 이동
본당 신부: 남원본당으로, 후임엔 문정현 신부
왕 신부: 임실본당으로, 후임엔 선태수 신부
송별식: 13일(일) 공식미사후
 2. 꾸리아: 13일(일) 오후 2시
 3.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15일(화)~18일(금)
 4. 새 영세자들은 신심단체에 가입하세요
 5. 80년도 교무금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287, 3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 | | | |
|----|----|---|---|
| 주임 | 신부 | 우 | 택 |
| 사도 | 회장 | 한 | 형 |
| | | 수 | |

1. 이임: 오현택 신부님, 그간 본당 사목과 교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다가, 이임하시는 신부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환송하고 기도드립니다
 2. 환영: 김병환 신부님, 새로 부임하시는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반장님 회의: 공식미사후 있음
 4. L.M 간부회의: 공식미사후 있음
- 지난주 봉헌금: 132, 386원

(노송동)

전화 ②7032

| | | | | |
|----|----|---|---|---|
| 주임 | 신부 | 김 | 정 | 원 |
| 보좌 | 신부 | 박 | 정 | 원 |
| 보좌 | 신부 | 낙 | 중 | 열 |
| 사도 | 회장 | 근 | 준 | 근 |

1. 성령 세미나 개최: 21일(월)~26일(토)까지 매일 오후 2시~4시, 다음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
 2. 애령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후
 3.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4.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후
 5. 보미사단 모집: 각 미사때에 수고하는 보미사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부모님께서도 직접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66, 647원

(숲정리)

전화 ②7366

| | | | | |
|----|----|---|---|---|
| 주임 | 신부 | 이 | 대 | 권 |
| 사도 | 회장 | 이 | 강 | 노 |

1. 청년회 월례회: 1월 15일 오후 7시
 2. 성모회 월례회: 1월 20일 공식미사후
 3. 미납된 봉헌금을 속히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남성 푸르실로 교육 등록 마감: 1월 19일
 5. 신축기금 내주신 분: 황의진(5만원), 임태사(1만원), 전준선(10만원), 북자성당 신자 익명(1만원), 정금순(10만원), 이막대·조봉순(각1만원), 전중근(15만원), 법석규신부님(10만원), 오창석(5천원)
- 지난주 봉헌금: 198, 700원

(덕진)

전화 ②2182

| | | | | |
|----|----|---|---|---|
| 주임 | 신부 | 서 | 석 | 기 |
| 보좌 | 신부 | 전 | 중 | 복 |
| 보좌 | 신부 | 유 | 제 | 상 |
| 사도 | 회장 | | | |

1. 남성 제13차푸르실로 신청바람 분당신부님 16일까지
 2. 50주년 행사, 설문서, 봉헌함에 봉헌 바랍니다
 3. 보미사단 모임: 오늘 3시 미사후
 4. 보좌 신부님 군산 문물동 성당으로 가십니다
 5. 고등학생 등반 월요일 오전 9시, 분당정결
 6. 영세사진은 덕진사진관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7. 반석회 모임: 본당내 젊은이들의 모임, 19일 저녁 7시
- 지난주 봉헌금: 263, 395원

(전동)

전화 ②3222

| | | | | |
|----|----|---|---|---|
| 주임 | 신부 | 김 | 병 | 엽 |
| 보좌 | 신부 | 김 | 기 | 수 |
| 보좌 | 신부 | 유 | 기 | 석 |
| 사도 | 회장 | | | |

1. 사도회·자모회·성화회: 공식미사후
 2. 장우회: 저녁미사후
 3. 성가정회: 21일 오후 2시로 연기
 4. 중·고생 동계교리: 17일~19일까지 시간-오후 3시~5시
 5. 유치원 원서교부: 15일 오전 10~12시까지
 6. 80년도 교무금을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08, 630원

(복자)

전화 ②5238

| | | | | |
|----|----|---|---|---|
| 주임 | 신부 | 김 | 종 | 택 |
| 보좌 | 신부 | 박 | 성 | 팔 |
| 보좌 | 신부 | 조 | 성 | 로 |
| 사도 | 회장 | | | |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임한전 형제백)
 2. 주일학교 동계 특별교리: (7~12일)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매일 140명출석,
 3. 미사시간을 철저히 지킵시다 (성경, 성가집, 기도서 지참)
 4. 교구설정 50주년: 설문지 취지문 20일까지 제출요
 5. 대학생회: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천원 참석바람)
 6. 예비자교리: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후-허태사지도대주 화요일 저녁미사후-박신부 지도
 7. 80년도 복자 학생회 회장-장연식, 부회장-박중호, 윤현희
- 지난주 봉헌금: 289, 13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 | | | | |
|----|----|---|---|---|
| 주임 | 신부 | 김 | 영 | 일 |
| 사도 | 회장 | 채 | 수 | 현 |

1. 여성 푸르실로 7차: 14일~17일 많은 지방 참석을 바랍니다
 2. 결혼 하실분들은 적어도 3주전에 본당 신부와 면접을 하십시오
 3. 금년도 사목계획: 지난주 사도회에서 결정했으니 계획 설계에 본당 전신자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4. 전신자 일일 일단체 가입하여 본당 활성화에 적극 추진합니다
 5. 금일 말 주일 사도회 감사이신 이교성씨가 평신도 강론에 수고 하실것입니다
 6. 유치원 원서 교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9, 185원 어린이헌금: 3, 400원 교무금: 26, 500원

신 입 서

순교 선열의 열이 서린 유서깊은 성지 숲정이에
숲정이 성당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으로 아래와 같이 정성을 모아 신축 자금으로 신입
합니다

《아 래》

신입금 五拾萬 원정 ₩500,000

납부예정일 : 자 197 년 월 일
지 197 9년 8월 31 일

7.12.20
500,000 (부속)

신입자 : 주소: 전주시태평동 1212-13
성명: 이 상신 본명 아오르
소속: 교구 교회
연락전화번호: 0-0445

숲정이성당 신축 추진회 귀중

